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1. 5. 4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동아일보 “유가 100달러시대 관련” 보도에 대한 해명

1. 기사 요지 ('11.5.4, 동아일보 A10면)

- 유가 100\$ 시대, 에너지 비상대책 시행 두달이 되었으나 정책 효과 미약
- 3월 야간(22~06시) 전력사용량은 4억2499만kWh로 작년보다 8.2% 증가한 반면, 주간(06시~22시)은 6.1% 증가
 - 야간조명 소등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은 지양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주택, 건물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◇ 야간 전력사용 증가율이 주간보다 증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
- 야간조명 소등 이외에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

□ 3월중 야간 전력사용량 증가 보도 관련

- 보도 내용은 전년 동기 대비 3.1~3.31일까지 송전량 기준 자료를 사용하여 오해 발생
- ① 야간조명제한 강제시행은 3.8일부터로, 그 이후부터 비교함이 적절
 - 3.8일 이후, 한달간 전년 대비 비교시 야간의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5.03%로 주간 전력사용량 증가율 5.32% 보다 낮음

<전년동기대비 시간당 전력사용증가율 비교(단위: 만kWh)>

	야간(22시~06시)	주간(06시~22시)
10.3.8~4.7일	5,141	5,495
11.3.8~4.7일	5,372	5,788
증가율	5.03	5.32

- ② 전력수요량 비교 자료로는 발전량 기준이 사용되나, 보도시 사용한 데이터는 송전량 자료를 사용

* 송전량 자료는 민간발전사가 별도 판매하는 전력과, 신재생 발전량 등이 누락되어 전력수요 분석시 발전량 기준 자료 사용(전력거래소)

- ③ 전년대비 사용량 비교는 경제성장을,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난방 수요 이전, 기온효과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야간조명 규제 조치 정책효과의 직접적 분석이 곤란 ⇒ 전월대비 사용량 분석이 보다 적절

- 소등조치 이후 1일 평균 전력소비량은 조치전에 비해 약 6.7% (9,620만kwh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

< 소등조치 전·후 전력 소비량 (단위 : 만kWh) >				
구 분	조치 전(2.8~3.7)	조치 후(3.8~4.17)	감소량	감소율
일 평균 소비량	142,784	133,164	9,620	6.7%
시간 평균 소비량	5,949	5,548	400	

- 전력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기온 상승요인(2월대비) 반영시에도 소등조치 이후 전력 소비량이 1일 평균 908만kWh 감소

* 이는 상업용 전력 1일 평균 사용량의 3%가 감소한 것으로, 약 114만 가구의 1일 전력 사용량에 해당

- 특히, 소등조치 시간(22시~06시)의 전력 절감량(시간당 49만kWh)이 이외 시간대 전력사용량 감소(시간당 32만kWh)보다 51% 높음

* 11년 2월 대비 3월 전체 전력사용량은 3.5% 감소하였으나, 일반용(상업용) 전력사용량은 14.9% 감소(분야별 전력판매량 분석)

□ 야간조명 소등에만 의존하는 에너지절약 정책 관련

- 지경부는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와 함께 국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대책도 중점 추진중

- 특히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호응이 매우 크며,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금년 하반기부터, 가정·상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

◇ 에너지절약 1만 우수가구 선발대회 : 신청자 40만돌파
⇒ 50만 참여시 200억 절감(예산대비 6.5배)

◇ 에너지 절약펀드 운용사 공모 : 상위 증권업체 다수참여
⇒ 3,800억원 절감(투자대비 3.8배)

◇ 영세상인 광고간판 LED교체 : 250억 신청(100억지원)
⇒ 1.5만개의 간판교체, 230억원 절감(예산대비 2.3배)

◇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: 5,000건 이상 신청접수

- 또한 금번조치가 일반 국민들의 행동변화와 실천, 나아가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이승렬 과장(02-2110-3935)
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권기만 사무관(02-2110-3936)